

항해, 항해

M-Tree

장학금으로

떠난 항해

Contents

M-TREE 장학금

장학생 소감문



M-TREE 장학금

미디어학과 산업의 미래를 이끌 열정과 잠재력

홍기선 명예 교수님께서 기부하신 기금을 바탕으로 2021년에 조성된 M-Tree(Media Tree) 장학금은 미디어대학생들의 경제적 제약과 도전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M-Tree 장학기금이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교수님들께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휴대폰 카메라 촬영 후, 1666-3403(문자수신전용)으로 전송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고려대학교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M-Tree 장학기금 기부 약정서			
기부자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		
고대와의 관계	☐ 교우 ☐ 교원 ☐ 직원 ☐ 학부모(학생 소속:)		
기부 금액	원		
납부 방법	하나은행 33-1905-1905-1905 (예금주: 고려대학교) 동명어인 구분을 위해 입금자명에 성함(학과학번) 또는 성함(생년월일)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납부 기간	☐ 일시 납부 년 월 일 납부(예정)		
	☐ 분할 납부 년 월 ~ 년 월()회 분납(예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및 이용 목적: 기부금 수납 및 기부자 예우 •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교우정보, 서명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금융결제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 3 등에 의거함)			
본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위 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M-Tree 장학기금에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성명		(서명)	

최기현

미디어학부 20학번



규칙을 따라 항해하면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닿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뻔히 그려집니다. 항해의 가치는 내가 닿을 곳을 상상하는 즐거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해진 규칙 대신 학술 연구부터 빅데이터, AI까지 저만의 향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규칙 없는 항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전제하기에, M-Tree 장학금은 제 **규칙없음**을 지켜줄 순풍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연희

미디어학부 2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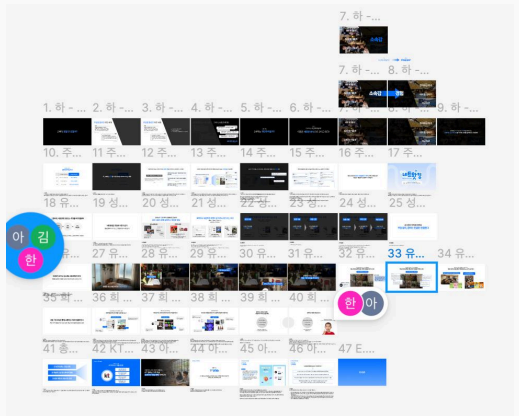


장학금이라는 든든한 **땃**이 있었기에,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영화가 거친 파도를 넘어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프로덕션 수업을 완성하고 나니, 마치 깊은 바다를 건너 마침내 졸업작품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항해를 마친 듯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라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단히 중심을 잡아주신 미디어대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Tree 장학금이 제게 선물해 준 이 믿음의 땃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더 넓은 미디어라는 바다를 향해 당차게 항해해 나가겠습니다.

오유니

미디어학부 23학번



어떤 변화를 만나더라도 새로운 **향로**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행동을 살피고, 그 안에서 아직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길을 찾아 브랜드와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광고기획자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보고 경험하며 저만의 향로를 남기고 싶습니다.

M-Tree 장학금은 금전적인 제약을 넘어 제게 더 많은 향로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M-Tree 장학금을 통해 키운 식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의 바다를 탐험하며,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향로를 그려내는 광고기획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이후싱

미디어학부 23학번



넓은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 주는 건 언제나 **나침반**입니다. 저에게 그 나침반은 데이터입니다. 감이나 관성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어떻게 풀까'보다 '어떤 문제를 풀까'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미디어 산업이라는 넓고 빠르게 변하는 바다를, 저는 이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 읽어 왔습니다. 데이터를 깊이 파고 들수록 그 나침반의 눈금은 더 정밀해졌고, 덕분에 흩어진 정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정의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이 잠깐 흔들려도 결국 다시 방향을 찾듯 작은 문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데이터라는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를 향해 즐겁게 향해하는 미디어 데이터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주기윤

미디어학부 23학번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더라도 **뜻**이 없다면 어디로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디어학부에서 보내온 시간은 튼튼한 뜻을 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써 보고, 영화를 찍어 보는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미디어라는 넓은 산업 현장에서 더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나를 더 질긴 뜻으로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미디어학부에서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며 날 선 바람에도 찢어지지 않고 곳곳이 항해할 수 있는 뜻을 짜 더 멀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최빌레리아

미디어학부 23학번



제 고향 고등학교의 상징은 새싹이었습니다. 비록 뿌리는 그곳에 내렸지만 제 마음은
왠지 멀리 떠나서 **향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만에 도착하기는 이런 저에게
색다른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제가 다시 신입생을 환
영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학자이자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 작
품을 통해 저는 제 근간을 돌아보며 고향, 공동체, 그리고 자아 등의 주제를 전달하고
자 했습니다. 미디어대학과 M-Tree 장학금 덕분에 이러한 콘텐츠 분야를 더 깊게 이
해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M-Tree 장학금을 통해 후배
학우들의 창의력이란 새싹이 대단한 나무로 자라며 전세계가 들을 만한 이야기의 아
름다운 숲이 되길 바랍니다.